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적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nchanting Primitive Art in Modern Fashion

이 은 경 · 김 양 원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 · 비즈니스전공

Lee, Eun Kyung · Kim, Yang Weon

Dept. of Fashion Design · Business, Taejon Univ.

Abstract

Primitive men's primordial formative activity derives from incarnation contained in intensive vitality and strong creativity mind. The trend of modern fashion requiring the boundless imagination can be called that it, just, itself,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basic spiritual activity that primitive men had.

What is concerning how modern fashion designers have developed formative language through enchanting primitive art is as follows.

1. The nature's mysterious power appears to be transformed into personified image. The incarnation for acquiring beauty, power, prestige of genius appears in the form of personification, making use of mask in modern fashion.

2. As for primitive men, the whole universe has a potentiality as a symbol. The symbolism of primitive art based on religion and myth appears in modern art as the form of presenting oppositional objects together in one space.

3. Primitive art is the purest form and the most unpolluted. This shows the natural quality being assimilated into nature, which is expressed in modern fashion as intensity, free-spirit, simplicity, etc.

4. The primitive men's anxiety to the outside world appears as abstract impulse. The geometrical form of primitive art occurred in the shape of abstract impulse appears in abstract expressional form of modern fashion.

5. The real existence in primitive art inducing real materials and objects, in themselves, into formative world appears in modern art in the way of abstract expression such as repetition, enlargement, exact reproduction.

Key words: enchanting primitive art, symbol, nature, abstract, reality

I. 서론

1. 연구목적

원시인들이 그린 동굴벽화에서 원초적인 생명력과 강한 창조정신이 엿보이는 것은 그 근원이 주술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시미술의 주술성이 현대패션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창조적 영감의 공급원이 되고 있음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면 주술이 현대패션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이며, 조형의지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현대패션에서 내적 정서의 원천이 인간적 표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원시미술의 주술성과 일치한다. 또 현대패션의 비현실 추구라는 새로운 경향은 그 자체가 곧 원시인이 가졌던 원초적 조형활동의 기본적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의 미적가치를 논하기 보다는, 조형성의 측면에서 그 작품의 근간을 이루었던 주술의 조형적 의지력과 원초적 생명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술적 원시미술을 수용한 현대패션 디자인이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현대패션에서 재현된 원시미술 양식의 조형적 특성들을 분류하고 각 특성이 형태, 디테일, 색상, 소재, 문양, 장신구 등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주술적 원시미술에서 느껴지는 순수성과 생명감을 현대패션 디자인에 도입하여, 현대인의 다양한 표현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기여코자 함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원시미술을 향한 정신적 근거와 조형적 양식을 고찰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연구를 행하였으며, 이론적 연구에서 밝혀진 주술적 원시미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서 그 표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로는 미술에서 표현되는 원시주의 양식의 일반적 조형성과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또 하나의 양식으로 존재해 온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의지가 현대패션에서는 어떤 특성으로 정의되는지를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로는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성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서의 조형성을 밝히기 위하여, 패션잡지에 나타난 주술적 원시주의 경향을 띠는 복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원시미술의 조형적 특성을 보는 개념으로 다섯가지 기본범주를 적용하였으며, 미술과 복식의 원시주의 양식의 유사성을 주관적 서술식 해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II.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의지

1. 주술의 조형적 의지력

삶을 위한 인간의 본능은 주술을 낳게 하였으며, 주술 의식을 행할 때 현실적인 동물을 쓰지 않고 그 동물의 그림을 그려 이용했던 것이다. 이것은 주술이 먼저 있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예술이 생겨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주술은 조형에서 생겨난 것이고, 원시인의 지각과 표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재관, 1978). 주술이야말로 예술로 하여금 자연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요인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그 뜻을 파악할 수 있다(Hauser, 1980).

동물가죽을 씌운 찰흙 덩어리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형작품들이다. 이 작품의 유일한 목적

은 동물세계를 달래는 것, 즉 형상을 통하여 현실을 지배하려는 주술적인 의도가 근간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긴 세월을 거쳐 발전을 거듭하면서 동굴벽화의 사실주의적 회화 기법을 낳았던 것이라 볼 수 있다(에른스트 피셔, 1984). 이와 같이 동물의 사실적인 그림이 주술로 말미암아 풍부해지고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미개한 아프리카 종족들의 풍습에서 성인제나 비밀집회 심지어는 군주의 즉위 때에도 동물과 동물의 가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시인들은 가면을 만드는 일에 모든 기술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나타난 힘의 격렬함은 현재로서는 비길 수가 없을 정도로 탁월하다. 개인의 인간적 표현은 사라지고 그 대신 가면을 쓴 사람은 동물이나 악마의 공포를 주는 표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가면의 원형 이미지에 대한 믿음이 조형적 의지력이 담긴 창조성이 높은 작품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2. 주술의 원초적 생명력

주술은 인간이 자연과 합일하기 위한 행위이며 보다 순수하게 보다 강렬하게 스스로 자연물임을 의식하고 그 자각에 도취하기 위한 행위이다. 많은 작품들은 이러한 풍습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졌다(Gombrich, 1997).

원시미술이 갖는 주술적 특성을 살펴보면 신화, 애니미즘, 토텐이즘 등이 주술의 근원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신화는 태초에 있었던 신화적 사건의 재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의례, 모든 의미있는 행동들이 신화적 사건을 원형으로 반복하는 것은 모든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모범적인 선행이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나 행동은 그 사건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다(멜시아엘리아테, 1982). 즉, 시간의 태초에 신이나 신화적 인물에 의하여 행해진 원초적 행동을 반복하는 한에 있어서만이 의미를 가진다.

정령적인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애니미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물건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영적 작용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

는데 그것은 이원적인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원적인 애니미즘은 지식과 신앙을 이원론적인 체계로 정립시키고, 추상적인 것에 기우는 반면 주술의 특징은 구상성 있다고 할 수 있다.

토텐이즘은 제식으로 행동화하는 원시인의 염원이 생존을 위한 주문과 상징물을 가능하게 한 토텐 숭배로 된다. 토텐이란 부족의 의미로 쓰이며 이때 그 부족의 구성원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 특정한 동물이 그 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친근감을 주는 대상이 될 때 비로소 결속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감정은 의식적인 집단의 표현이 되어야 했다(김경선, 1983).

III.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술적 원시미술의 양식 변화

1. 원초적 세계에 대한 강렬한 열망 - 상징주의

순수성과 원초적 생명력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대 디자이너들은 내적인 힘 즉, 정서의 원천이 모든 인간적 표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표현의 대상도 인간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열망은 바로 문명사회에 물들지 않은 건강하고 야성적인 인간성의 발견에 대한 열망이기도 했다. 원시적인 것에 대한 사랑, 야만적인 것이 되고자 하는 욕망, 문명과 사회로부터 탈출코자 하는 욕망을 위하여 형태를 단순화하고 강렬한 색채로서 순수하고 소박한 자연 묘사를 추구했다(김경선, 1983). 이러한 정신의 정화운동은 상징주의에서 시도되었다. 상징주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재현하는 것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내면의 세계, 혼의 영역에까지 탐구적인 눈을 돌려야 한다는 데에 그 근본적인 역할이 있다(임영방, 1979).

2. 내적 세계로 향한 가치전환 - 야수주의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의 강한 터치로 성격화시

키면서 단순화를 대담하게 감행하여 개성이 뚜렷한 화면을 낳는 것이 야수주의이다. 야수주의는 색채에서 빛의 인상을 조금씩 칠해 가는 타율적인 색채가 아니다. 단숨에 캔버스에 범람시킨 강렬한 원색이야말로 다이너마이트의 뇌관과 같은 것이다. 강렬한 원색이 작렬하는 가운데 감성의 해방과 자아의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젊고 창조적인 에너지의 대담한 연소를 다하려는 태도에서 원시성을 발견하게 된다. 야수파 작품 화면에 굴곡 되어진 형태나 폐쇄된 윤곽같은 것이 있고 선사시대를 연상시키는 인물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이는 강렬한 색 그 자체로서 조형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념은 조형적 생명의 원동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원초적 생명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도화하고 디자인화 된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3. 내재되어 있는 기억에서의 추출 - 입체주의와 아프리카 미술

아프리카 원시 혹은 조각에서 강한 영감을 얻은 입체주의는 단순하게 지각된 사실을 사고된 사실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시미술에서 주술의 원형이 지각작용에 의해 구성되어지는 것과 흡사하다. 여기에서 입체주의가 보여주는 진실이라는 것은 대상의 기본 형태를 조형적인 요구에 따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조형의 통일과 질서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원시인들이 직접적인 지각작용에 의해 표현하지 않고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기억 속에서 추출하여 표현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이숙경, 1983).

아프리카 원시미술이 미친 영향은 현대패션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최근 많은 디자이너들이 아프리카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를 모티브로 많은 디자인을 했으며 또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악세서리는 그대로 디자인에 반영하는 등 다채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이영경, 1994).

4.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의 순수 표현 -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 화가들은 원시예술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모색하여 아득한 원시인들의 창작품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최대한 발전시켰다. 꿈이나 악몽의 장난과 같은 진정한 말을 하지 않는 이미지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원시주의의 최초의 정신 활동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는 인간 내부의 심층세계 즉, 무의식 세계의 순수한 표현을 추구한다. 원시주의가 농후하지만 그 중심을 차지하는 오브제의 개념은 모든 문명을 원칙적으로 무차별하게 취급하고 원시주의와 상반된 인공주의에로 전락한다. 신화 속에서 주제를 찾으려는 초현실주의자의 자세에서 고대의 주술적인 빛 속에 흐르는 인간 최초의 정신 활동이 담겨져 있는 원시미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알 수 있다.

초현실주의의 오토마티즘에 의한 현대패션 디자인은 바로 원시적 주술의 경지와 상통하는 것으로 정령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원시 아프리카 사회의 정령적인 것을 좀더 과학적인 방법론을 동원하여 체계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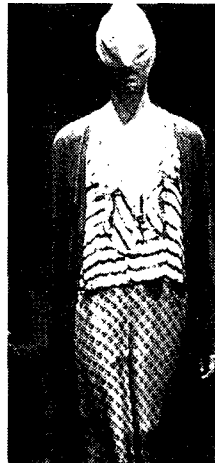
IV. 현대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원시미술의 조형적 특성

1. 주술성

원시인들이 실제 사물과 그들이 제작한 회화나 조각 사이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최초의 인간은 무서운 자연의 변화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이런 그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주술적 사고 방식이었으며 이것은 자연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었다.



〈그림 1〉 MODE et MODE
NO. 304. p. 94.



〈그림 2〉 MARTIN MARGIELA
1996.



〈그림 3〉 COLLEZIONI
NO. 53. p. 343.

토템, 신앙, 방패 등이 원시미술의 주요한 조형 내용으로 그것이 조형이든 가면이든 또는 추상적이든 구상적이든 거기에는 언제나 격렬한 생명의 충동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들이 만드는 조형은 주문이자 동시에 생명의 표상이다. 따라서 그들 주위에 있는 친숙한 동물이나 식물 등의 생명력은 일종의 정령으로 그들이 주술적인 내용에 이입되고 자연의 신비한 힘은 의인적인 이미지로 변형되어 무형의 자연이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원시인은 자기 주위에 막을 치는 방법으로 가면을 이용한다. 가령 토템 축제 때에 인물과 동일화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술적인 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Yung, 1986). 가면의 기능은 개별적인 인간의 표정이 이 가면 속에 감추어지는 반면에 이러한 가면을 쓰는 사람이 동물 수호신의 위력과 권위와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가면을 쓰는 사람은 그 가면에 상징하는 신으로 승화하게 된다(야페, 1979).

아프리카 사회에서의 가면은 자연을 지배하는 자연신이 됨을 의미했으며, 거기에는 가면이 사는 세계가 있으며, 사회를 다스리는 주요한 법칙이기

도 한 것이다(증앙일보, 1987). 악령으로 짓밟히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도저히 대항할 수 없을 때 가면을 쓰고 주술을 행하는 것으로 가면은 정령을 불러모으고 이것을 쓰는 사람은 정령 그 자체로 변화하는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Janson, 1980).

그림 1은 지방시의 작품으로 붉은 색을 사용함으로써 격렬한 생명의 충동이 넘쳐 흐르고 있다. 주술의 의미를 내포하도록 머리 부분에 새장을 연상시키는 장식품을 얹어 놓았다. 이는 패션이 실용성 이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는 세련되지 않은 무질서한 형태와 장식적 곡선, 곡선과 직선의 절충이 형태상의 특징으로 나타나며, 황금색과 무채색을 사용하여 수호신의 권위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은 직선의 기하학적 무늬가 복식의 상의 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검정과 은색의 조화, 장식선의 사용 등 질서 있는 선이 독창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전체보다는 부분의 인식이 우선하는 작품으로 가면을 통하여 권위와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패션디자이너 199(2).
정은도서. p. 402.

〈그림 5〉 COLLEZIONI.47
p. 332.

〈그림 6〉 패션디자이너 199(2)
정은도서. p. 202.

2. 상징성

인간의 창조성은 무의식과 공상의 소산이며, 예술은 그에 대한 상징적 언어라 할 수 있다(조요한, 1981).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 돌, 식물, 동물, 인간 등 우주전체가 상징으로서 잠재력을 가진다. 따라서 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시인들은 그 사건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Read, 1974). 하나의 사물은 다른 무엇의 상징으로서 연상되며 이러한 무의식의 심연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시미술에서 엿볼 수 있다. Yung(1959)은 원시인이 사용하는 상징적 형태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꿈에 나타난다고 하여 현대인의 꿈의 이미지와 원시인의 신화적 이미지 사이의 유사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유사성을 원형 또는 원시심상이라고 부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깊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한다. 상징은 단순하게 대상의 대리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 대상에 대한 표상을 운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에 있어서 상징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추상의 감정이나 사상을 한 이미지의 형태나 대상의 형태로 규정시키려는 시도이며 관념을 전달하여 표시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징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Cassirer(1944)는 “상징성의 원리는 그 보편 타당성 및 일반 적용성으로 인간문화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예술은 구체적인 모습과 형태 대신에 상징과 암호, 추상과 생략, 인습화된 기호 등의 상징적 형태로 나타난다(Read, 1974). 원시미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현대패션의 초현실적인 작품과 원시미술에서의 상징적 의미와 일치하는 것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여 비합리성을 강조하였다. 즉, 작가들은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와 그들의 공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초현실적 대상들을 형식의 대립과 재료의 대립으로 구성하였다(그림 4).

그림 5는 강한 장식성의 바디 페인팅과 신체 장식의 수단인 상흔으로 다른 동물이나 신과의 동일시를 꾀한 Roberto Gavalli의 작품이다. 신체 장식 내 문양은 거의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문양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림 7〉 Gianluca Gabielli



〈그림 8〉 Erreuno(1995)



〈그림 9〉 Ennzo Coven(1995)

는 상징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림 6은 어깨를 드러내는 황금색 원피스의 가슴 부분에 탈을 달아 인간의 원시적 생명감에로의 동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무의식의 세계와 공상적인 신화로부터 형성되어진 원시미술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 환경지향성

Stevens(1935)은 원시미술은 존재 가능한 미술 형식 중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가장 오염되지 않은 것이라 하였다. 왜냐하면 주술적 사상과 정신적인 경험에 의해 깊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 생태학적 위기의 인식과 때문지 않은 자연으로의 회귀는 에콜로지 패션을 등장시켰다. 이러한 에콜로지 패션이 이미지로 부각시킨 것은 자연의 모습이며, 이는 곧 문명에 물들지 않은 원시세계의 동경과 자연으로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에콜로지 패션은 인공적 행위에 오염된 현재의 환경을 거부하고 자연으로의 동화를 피하며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는 소박한 소망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패

션테마이기도 하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는 원시로의 회귀를 주제로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세계의 모습을 추구하고, 자유분방한 창작활동을 통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표현을 위주로 하고 있다. 에콜로지 감각은 아직도 문명이 닿지 않는 자연의 한 복판에 사는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단순함, 강렬하고 활동적인 감각을 현대패션의 스타일과 색상, 무늬, 재질 등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런 멋을 부각시키기 위해 천연섬유를 선택하고 특히 천연 염색된 소재를 사용하여 소박함과 편안함, 착용감을 동시에 추구한다. 디자인 면에서는 지나친 조형미를 배제하고 수수하고 활동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실루엣을 지향한다(그림 7).

그림 8은 에콜로지를 표방하는 자연주의 패션의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흰색으로 된 단순한 실루엣의 원피스이다. 자연을 본뜬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자연스런 멋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나친 조형미를 배제하고 있다.

그림 9는 인체를 최대한 노출시킨 단순한 실루엣으로 자연스런 인체미를 추구한 작품이다. 천연소재에 프린트된 무늬의 사용으로 자연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그림 10〉 COLLEZIONI
NO. 32.



〈그림 11〉 Jean. Lonis Schen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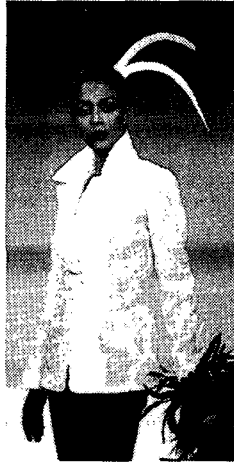
〈그림 12〉 COLLEZIONI
(1992)

4. 기하학적 추상성

인간의 추상충동은 관념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재현 예술에서 탈피하여 자연에서는 감지할 수 없는 질서를 제시하게 되었다. Worringer는 외계에 대한 불안이 추상충동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조요한, 1981). 원시 시대에는 외계의 가변적인 자연현상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술적, 상징적 기호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 현대에 있어서도 자연의 순간적이고 불완전한 상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연미보다 오히려 기하학적인 형태와 구조에서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 따라서 보편적인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기하학적인 양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현대패션은 재현적 목적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율성을 동경하는 원시시대의 기하학적 조형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60년대의 팝아트(Pop Art), 옵티컬아트(Optical Art)와 비슷한 경향으로 디자이너들은 명암의 차이와 색의 대비효과를 이용해서 시각적

착각을 유도하는 새로운 표현형식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그림 10은 색의 단계적 톤의 변화와 반복적인 색면과 선에 의한 구성으로 3차원적인 시각적 효과를 이루고 있으며 정착화된 화면에서 수축, 확대 등의 운동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림 11은 각각의 도형이 결합되어 주제의 내용을 이루고, 다양한 주제는 그들의 전통적인 세습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원시문화에서 특정 부족의 문장을 나타내는 상징적 기능, 또는 주술적 기호로써 기하학적 도형들은 현대패션에서 표현의 한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림 12는 한쪽 어깨가 드러난 짧은 원피스로 변적이는 광택 소재와 투명한 소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질감의 추상성을 높여 주고 있다. 추상적 기하학적 무늬는 원시인의 조각품에 나타나는 추상적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추상충동에 의해서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존속해 온 기하학적 추상성은 패션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서 재발견 할 수



〈그림13〉 BAZAAR. NO. 26. 〈그림14〉 PEGORER. 1997. 〈그림 15〉 COLLEZIONI. NO. 32. 1998. p.35. 1993. p. 112.

있으며, 그러한 기하학적 형태들은 평면의 특성인 정착된 공간구성에 유동성과 입체적인 시각적 효과를 준다.

5. 실재성

예술에 있어서 현실의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 하더라도 변용(變容)의 과정은 피할 수 없으며, 작가의 환경과 심리적인 반응에 따라 같은 대상이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오광수, 1985). 이와 같이 예술은 작가의 일면적 시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사실적인 그림이나 조각은 일면의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술의 가상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원시미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원시인들은 그 부족의 신화적인 새를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 새의 깃털을 직접 주술에 이용하였으며, 또한 조상신과 인간의 매개체가 되었던 가면에는 조상의 머리털을 부착하여 조상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신화와 종교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소재를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원시예술에서 대상의 구체적인 재료가 대상 자체를 조형세계에 끌어들이는 특성은 현대패션에서 오브제의 등장으로 나타난다. 오브제는 객관 존재로서의 물체가 심리적 효과에 의해 주관의 내면에 작용할 때 그 자체가 일상적 의미를 탈피하고 다른 형상의 의미로서 예술 작품화하는 것이다(유재구, 1980). 따라서 현대패션은 이러한 오브제관의 영향으로 급속한 전환을 가져왔다. 즉 현실의 대상을 이미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물체를 조형세계에 끌어들이으로써 대상에의 해방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림 13은 일상적 기능의 의미를 떠나 디자이너에 의해서 의도되어진 오브제 작품이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인디언들의 예술처럼 직접적인 방법으로 실재성을 찾기 시작하였다. Jiri Tichy는 나무, 금속, 깃털 등을 작품에 사용하였고 그것은 색채의 가장 좋은 매개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러한 실재적인 재료의 색은 매우 심원하고 강렬하며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다(Kuenzi Anere, 1974)라고 하였다. 원시미술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직접 조형에 이용하는 방법은 실재성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현대패션 디자이너의 작품에 오브제가 등장함으로써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4).

그림 15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이용한 의상이다. 식물의 줄기, 구슬, 조개껍질, 가죽끈 등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현대 기계문명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조형미를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의지를 '조형적 의지력'과 '원초적 생명력'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술적 원시미술의 조형양식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이 어떻게 유사하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상징주의로 표현되는 원초적 세계에 대한 강렬한 열망, 야수주의로 표현되는 내적 세계로 향한 가치전환, 입체주의와 아프리카 미술로 표현되는 내재되어 있던 기억에서의 추출, 초현실주의로 표현되는 무의식 속에서의 순수의 표현 등 4가지로 집약된다.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은 현대패션에서 부족하기 쉬운 생명력을 원시미술에서 발견하려 했다. 현대패션 디자이너들이 주술적 원시미술을 통해 어떻게 조형언어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의 신비한 힘은 의인적인 이미지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수호신의 위력과 권위와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한 주술성은 현대패션에서 가면을 이용하여 의인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원시인들에게 있어서는 우주 전체가 상징으로서 잠재력을 가진다. 종교와 신화에 근거하는 원시미술의 상징성은 대립적인 오브제를 한 공간에 함께 제시하는 형태로 현대패션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원시미술은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가장 오염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원시세계의 동경과

자연으로의 동화를 나타내는 자연성으로 현대패션에서 자유로움, 단순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넷째, 원시인들의 의제에 대한 불안이 추상충동으로 나타난다. 추상충동에 의해 발생하였던 원시미술의 기하학적 형태는 현대패션의 추상적 표현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실제적인 재료나 대상 자체를 조형세계에 끌어들이는 원시미술의 실재성은 현대패션에서 반복, 확대, 정확한 재생 등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은 주술적 원시미술이라는 정신적 방법론을 통하여 새로운 양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주술적 원시성의 경향은 원시적 표현과 그 정신의 차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성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디자이너의 표현에서 원시인의 조형적 의지력, 강렬한 생명력이 나타날 때 원시미술이 가지는 의미는 보다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주술성, 상징성, 환경지향성, 추상성, 실재성

참고 문헌

- 가재창(1993). 디자인 발생 트레이닝. 서울: 도서출판 정은.
- 김경선(1983). Black-Africa 가면에 나타난 조형의지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환(1990). 원시미술. 서울: 도서출판 동문선.
- 김재관(1978). 현대미술 속에 나타난 Primitivism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1990). Primitive Art에 대한 동경. 이화여자대학교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혜신(1991). 현대섬유미술에 나타난 원시주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구(1980) 현대 섬유예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경(1983). 현대미술에 나타난 원시성에 관한

-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경(1994). 아프리카 원시문양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산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방(1979).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조현애(1988). 주술적 원시회화가 현대회화에 미친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요한(1981).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 중앙일보사(1987). 아프리카 미술전
- 하지수(1993). 복식에 나타난 원시주의 양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야페, A.(1979).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서울: 열화당.
- Hauser, A.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백낙청 역. 서울: 창비신서.
- 에른스트 피셔(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김성기 역. 서울: 돌베개 인문사회과학신서 14편.
- Cassirer, E.(1944). 인간이란 무엇인가. 최명관 역. 서울: 전망사.
- Gombrich, E. H.(1997). 서양미술사 上. 최민 역. 서울: 열화당.
- Stevens, G. A.(1935). *Educational Significance of Indigenous African Art*, Oxford University Press.
- Read, H.(1974). 예술이란 무엇인가. 윤일주 역. 서울: 을유문고.
- Janson. H. W.(1980). 회화의 역사. 김윤수 역. 서울: 삼성출판사.
- John, S. Mibiti.(1979).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 정진홍 역. 서울: 현대사상사.
- Yung. K. G.(1959). 인간과 상징. 조승국 역. 서울: 범조사.
- Yung. K. G.(1986). 무의식의 분석. 설영환 역. 서울: 선영사.
- Kuenzi Anere(1974). *La Nouvelle Tapisserie, Geneve: Les Edition de Bonvent Geneve.*
- 멜시아엘리아데(1982). 종교형태론. 이은봉 역. 형설출판사.
- 알렉산드리아, S. (1986). 초현실주의 미술. 이대일 역. 서울: 열화당.